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도슨트 제도 개선 연구

박영신* · 이정화

조선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The Study of Docent System Improvement for Revitalization of Science Museum

Young-Shin Park* and Jung-Hwa Le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501-759, Korea

Abstract: The revitalization of science museum depends on the number of qualified docents who can meet the museum visitors' educational needs. However, the current unstructured docent system is not sufficient to meet the goal. Forty six docents currently working in science museums were surveyed about docent training program, current working conditions, and docent professional program in order to propose a viable system providing a docent profess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with 46 docents, interviews with two experienced docents, and several artifacts from the science museum and selected docents. The surveys consisted of 47 items asking about personal biography, docent's perception, docents training program they took, current working conditions, and supplementary professional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must be recognition about docents who can play educator's rol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volunteers in terms of recruiting and training system in science museum. Second, docents need to take training and supplementary professional courses that focus on observing and educating visitors in the field. Third, we need a docent management system by employing a well structured evaluating tools. A well established docent system will bring forth the enhancement of science museum education and the increase of science popularization by providing visitors with the quality educational services.

Keywords: science museum, science museum education, docent, docent system

요 약: 현재 과학관은 관람객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슨트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그 교육 및 관리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과학관 도슨트 4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수한 양성교육, 현재의 활동 조건 및 보충 연수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여 도슨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설문지, 2명의 경력 도슨트와의 인터뷰, 과학관 및 도슨트 양성 관련 문서를 수집·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도슨트에 대한 인식, 양성교육, 도슨트 활동, 보충 연수교육, 만족도를 조사하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첫째, 과학관 관계자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모집·양성되어 과학관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가관과 실습 위주의 도슨트 양성 및 보충 연수교육이 개발되어 강의를 통한 형식학습과 상황학습의 비형식학습이 균형을 이루면서 도슨트의 전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한 도슨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체계적인 도슨트 제도는 과학관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과학관교육의 입장에서 관람객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과학대중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주요어: 과학관, 과학관 교육, 도슨트, 도슨트 제도

서 론

과학대중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국내 과학관 및 박물관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각 기관에서는 증가하는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과학관(이 연구에서는 과학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모두 과학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이 중 과학관 교육자들은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학관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시해설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일회성이거나 제대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과학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박영신과 이정화, 2011; Grenier, 2009). 여기서 말하는 과학관 교육의 목적은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도슨트나 과학해설사가 지니고 있는 교육의 질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김영수, 2009; 윤병화, 2012; 노용 외, 2007; Hooper-Grenhill, 2007).

과거 전형적인 도슨트는 소위 상류층을 대상으로 소장된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남자를 일컫는 용어였지만, 박물관의 설립목적이 시대를 따라 변하면서 그 의미 또한 확대되고 변화였다. 즉, 현재 인식되는 과학관에서의 전형적인 도슨트란 '전시해설을 포함한 전시부스 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관람객들이 과학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 불린다(National Docent Council, 2001). 도슨트의 역사가 과학관보다 긴 미술관의 경우, 도슨트는 작가를 대신하여 작품의 의도를 설명해주고 더불어 의사소통을 통하여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일컫는다(윤은희, 2005). 한편, 유물을 소장하고 설명하는 박물관의 경우는 전시장의 동선을 설정하여 안내하고 관람객의 대상에 따라 전문적인 용어와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난해한 작품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gallery talk)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한다. 과학관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용어가 도슨트를 대신하는데 과학 해설자(science interpreter),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science communicator), 에듀케이터(educator) 및 설명자(explainer) 등이 그것이다

(박영신과 이정화, 2010; 박영신 외, 2011; 박영신, 2011a). 과학관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위와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시물을 이용해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이 각 기관마다 도슨트에 대한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슨트는 관람객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람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교육적인 역할 이상의 과학이론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책임감, 매너, 정중함, 인내력이나 사교성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관은 도슨트(이 연구에서는 과학 해설사도 포함하기로 한다)를 어떻게 양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활동은 과연 과학관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일까? 국내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의 경우, 도슨트의 역사가 과학관에 비해서 오래된 편이지만 이 분야에서 명확한 양성제도나 교재가 확실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도슨트가 관람객들의 교육적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윤은희, 2005; 이철희, 2009). 특히 미술관에서 전시는 전시물 큐레이터나 작가들에 의해 직접 기획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기에 관람객으로 대변되는 소비자들은 작품자체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을 기술한 명세표나 간략한 작품설명 명을 곁들인 도록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뿐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슨트의 활동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다(김효선과 김경훈, 2011; 박은희 외, 2009). 과학 도슨트가 활동하는 과학관은 국내의 경우 지방과학관을 포함하여 수십 개에 이르나 도슨트를 양성하는 기관은 과학관협회를 비롯하여 3-4개에 지나지 않고, 정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는 교육의 공고가 나오긴 하지만 양성 후에도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과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슨트 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박영신과 이정화, 2010; 박영신 외, 2011; 박영신, 2011b).

도슨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며 봉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도슨트 자원봉사 모집의 첫 번째 조건이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라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2012;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2012; 박

영신과 이정화, 2011; Gateway Science Museum, 2012; McWane Science Center, 2012; Grenier, 2005). 국내의 과학관에서 9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도슨트의 경우도 ‘남는 시간에 하는 봉사가 아닌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도슨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닌(민수영, 2007; 박응희 외, 2009) 즉,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박영신과 이정화(2011)의 연구에 의하면 도슨트는 전시물에 대한 기본적인면서 과학적 지식이 연관되어 있는 일반상식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도슨트가 되기까지의 양성과정에서도 교육은 필요하지만 그 후에도 반복적인 교육이 제공되어, 도슨트 활동 즉, 전시해설을 통해서 급변하는 과학기술문화 속에서 교육적 만족을 바라는 관람객에게 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도슨트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이철희, 2009; Cox-Peterson et al., 2003; Grenier, 2009; Tsybulskaya and Camhi, 2009).

과학관이 도슨트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관 관계자들은 도슨트의 필요성과 이들의 체계적인 양성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한문정 외, 2010). 특히 과학관에서의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그리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사전지식의 개인적 맥락, 전시물에 관련된 물리적 맥락, 그리고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이 그 과학관의 활성화의 결정적인 맥락의 3요소라고 한다면(한문정 외, 2010; Fienberg and Lienhardt, 2000) 관람객의 흥미와 동기를 권장하고 사전지식을 확인하며 전시물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접적으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도슨트의 역할이야말로 과학관 교육요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에는 아직 과학관에서 도슨트를 양성하고 연수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슨트의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 도슨트는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고 도슨트는 어떠한 양성교육 및 보충 연수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며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슨트에 대한 인식, 도슨트 양성교육, 도슨트의 활동, 도슨트 보충 및 연수교육, 도

슨트 활동에 따른 만족도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해서 도슨트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교육제도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 교육조건 그리고 활동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국내과학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도슨트 교육 제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연구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하여 어린이 과학회관, 해양관, 생태체험관 등 과학과 관련한 체험 및 전시물을 경험할 수 있는 과학관에서 활동 중인 도슨트 동호회를 통해 46명의 도슨트를 섭외하였다. 우선 이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에 연구목적을 설명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도슨트 46명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1). 46명중 여자는 36명 남자는 10명, 연령은 40대(21명), 50대(11명), 60대(6명), 30대와 70대는 같은 4명으로 각각 분포되어 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은 7명, 고졸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또는 체형학습 교사를 겸하면서 도슨트를 지원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11명), 전업주부(9명), 퇴직자(8명), 자영업(4명), 연구직과 같은 전문직(3명), 학생(1명), 그 외 무응답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력은 5년 이상이 13명, 2년차 11명, 4년차 9명, 5년차 8명, 3년차 4명 그리고 1년차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과학관은 한 개라고 응답한 도슨트가 28명이었으며 많게는 5개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가 1명, 4개의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는 2명, 3개는 6명, 2개는 9명이었다.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연구자들은 도슨트의 전문성을 위한 도슨트 모집조건, 양성교육 내용, 지속적인 보충 연수교육을 파

Table 1. The demographical information of docent participants in this study

| | | |
|------------------|------------|----|
| 성별 | 남 | 10 |
| | 여 | 36 |
| 연령 | 30대 | 4 |
| | 40대 | 21 |
| | 50대 | 11 |
| | 60대 | 6 |
| | 70대 | 4 |
| 최종학력 | 고졸 | 4 |
| | 대졸(전문대 포함) | 35 |
| | 대학원 | 7 |
| 현 직종 | 교직 | 11 |
| | 전업주부 | 9 |
| | 퇴직자 | 8 |
| | 자영업 | 4 |
| | 전문직 | 3 |
| | 학생 | 1 |
| | 무응답 | 10 |
| 경력 | 5년 이상 | 13 |
| | 5년차 | 8 |
| | 4년차 | 9 |
| | 3년차 | 4 |
| | 2년차 | 11 |
| | 1년차 | 1 |
|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과학관 수 | 5개 이상 | 1 |
| | 4개 | 2 |
| | 3개 | 6 |
| | 2개 | 9 |
| | 1개 | 28 |

악하기 위해서 현재 도슨트가 과학관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영역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국내의 가장 오랜 도슨트 경력의 박 도슨트로부터 지난 2년간 국내의 도슨트 제도 관련 양성 및 보충 연수 교육, 도슨트의 활동 중의 어려운 점과 아쉬운 점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 및 지식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슨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설문 영역을 개발하였다(박영신과 이정화, 2011; 박영신, 2012). 첫째, 과학관 관계자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영역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활동 중인 국내의 도슨트는 모두 본인들의 열정과 보람으로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본인들의 일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는 도슨트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슨트의 자격조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설문지 영역에 포함하였다. 둘째로 도슨트가 경험했던 양성교육을 파악하여 이들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과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내용 요소를 파악하여 앞으로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도슨트 양성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고자 설문지 영역에 포함하였다. 셋째로 도슨트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 즉,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 활동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도슨트의 체계화된 협의회의 필요성 또는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넷째로, 활동 중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후 연수 프로그램의 요소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슨트 활동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슨트 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좀 더 알아보았다. 위 5개의 영역에 따른 47문항에 대한 결과 분석은 항목에 따라 일부 도식화와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 문항 당 응답자 수는 46명보다 적거나 많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무응답과 중복응답을 허용한 문항임을 밝힌다. 이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설문지의 영역 및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연구자들이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한 이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위해 연구자와 다른 2명의 과학관 관련 과학교육자가 함께 내용 타당도에 대해 토론하였다. 46명의 도슨트로부터 수집된 46개의 설문지는 그 영역별로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수를 산출하였고 설문지 내용의 구체적인 심화내용과 보조적인 내용 즉, 도슨트 지원자들의 성향,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도슨트 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도슨트(박 도슨트, 이 도슨트)로부터 추가적인 인터뷰를 실시 및 전사하여 연구자의 진술에 보충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도슨트 양성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서(A 국내 공립 자연사 박물관), 도슨트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2명의 과학관 방문객 인터뷰 및 박 도슨트가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활동지 자료를 이 연구의 삼각구도법(triangulation)을 위한 추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국내의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도슨트를 대상으로 도슨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고,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되고 양성되었으며, 현재 도슨트 활동 여건과 그에 따른 만족도는 어떠한지, 어떤 보

Table 2. The content of survey used for exploring docents' perception and practices in science museum

| 도슨트 인식 및 실천 | |
|----------------|---|
| 영역 | 내용 |
| 도슨트에 대한 인식 | 도슨트의 정의, 도슨트를 하게 된 동기 및 경로, 도슨트에 대한 이해도(11문항) |
| 도슨트 양성교육 | 양성교육 내용, 이수시간, 실습시간, 평가법(17문항) |
| 도슨트의 활동 | 성공적인 활동, 어려운 활동(8문항) |
| 도슨트 보충 연수교육 | 보충교육 내용 및 방법(6문항) |
| 도슨트 활동에 따른 만족도 | 본인들의 만족도(5문항) |

충 연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희망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실시한 설문지 및 보충자료에서 파악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슨트에 대한 인식

우선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들에게 이들이 정의하는 도슨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Fig. 1).

연구에 참여한 46명중 67%인 31명은 전시물의 이해를 돕는 해설자라고 응답하였고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자(15%),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인과도 같은 사람(13%)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4%)라고도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응답들은 과학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A 박물관의 도슨트 양성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도슨트 정의인 ‘박물관은 비영리 기관으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어느 기관보다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도슨트는 박물관을 단순히 보는 형태가 아닌 전시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설명이 있는 배움터로 이끌고 관람객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원봉사자’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슨트와 박물관의 정의에서 언급된 도슨트의 전시해설은 전시해설을 들은 관람객의 만족으로 이어졌

다. 즉, 연구자의 인터뷰에 응한 한 관람객의 경우, “이곳 자연사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접했을 때 전시물의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차후 ‘도슨트’ 해설 예약제가 있는 과학관만 찾아 자녀의 과학학습을 시키겠다”고 그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의 경우는 어떤 계기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을 하게 되었을까? 도슨트라는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도슨트의 권유에 의해(38%), 직접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여 도슨트에 의한 해석의 도움을 받은 후 이들의 활동에 매료되어 지원하게 되거나(33%),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도슨트라는 봉사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단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지식 및 경험을 얻고자 하는 것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한 도슨트가 전체수의 42명으로 90%에 이르며, 취업의 목적이나(20%),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37%), 또한 어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19%) 도슨트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Fig. 2).

특히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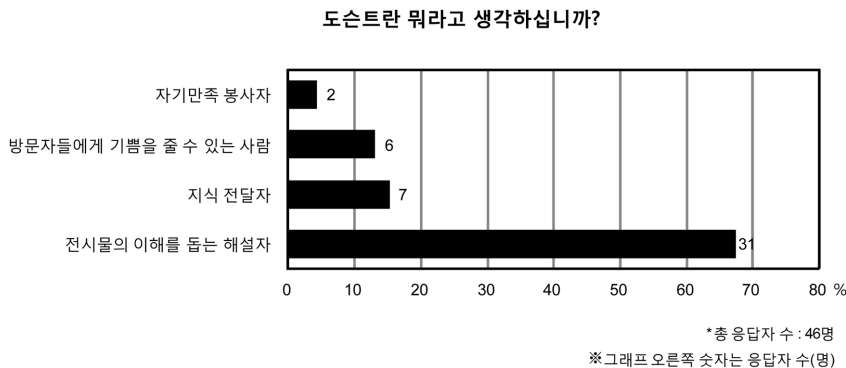


Fig. 1. The definition of decent perceived by working do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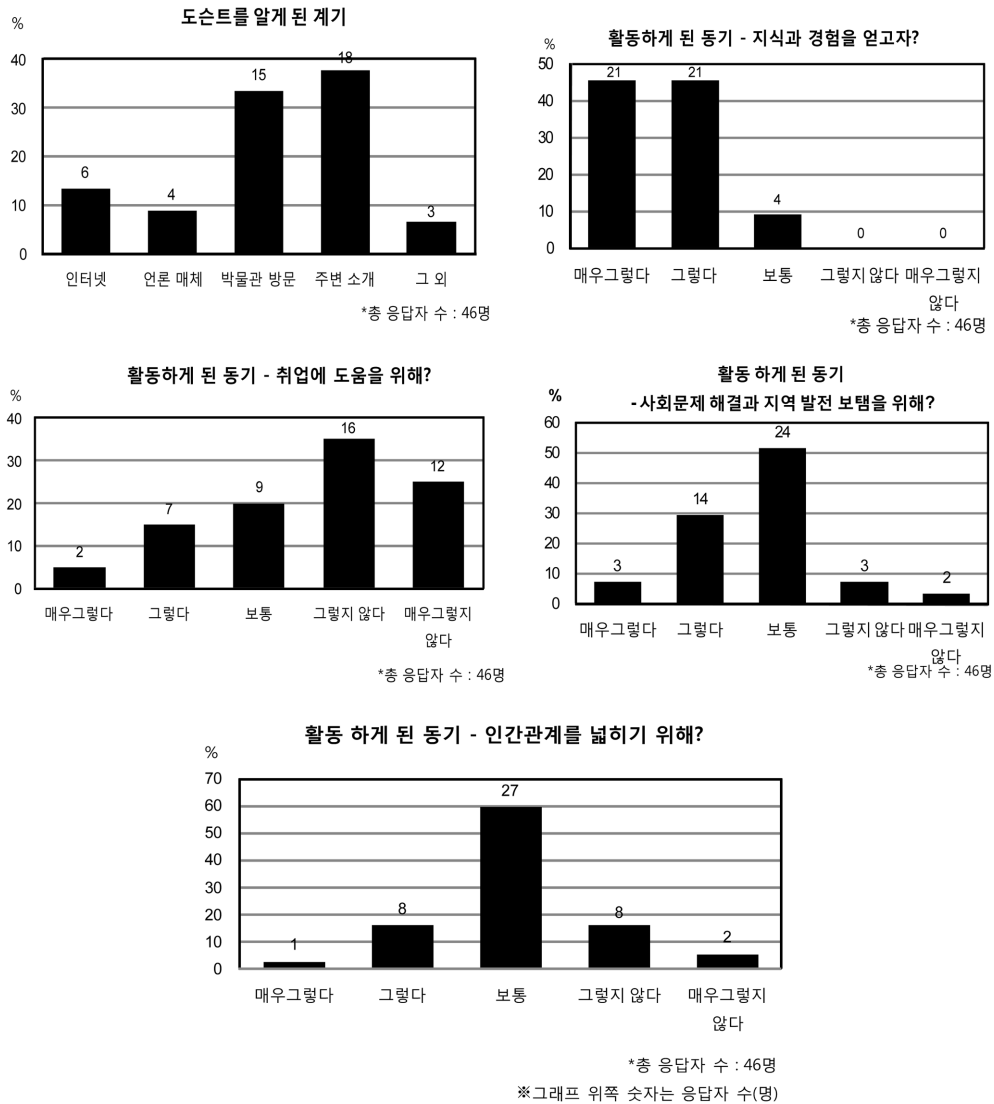


Fig. 2. The docents' perception about docent themselves.

어떤 종류의 지식과 경험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과학관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67%)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전시 해설법(17%), 사회봉사의 경험(8%), 과학문화저변확대(6%), 그리고 자기만족 경험(2%) 순으로 선호도가 파악되었다(Fig. 3).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되어도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도슨트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활동이 아닌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 봉사를 하는, 관람객 앞에서 과학관련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의 교육 봉사자들이며 이는 일반 서비스 차원의 봉사자들하고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이 도슨트는 응답하였다.

활동 동기로 지식과 경험을 얻고자하는 문항에 따른 높은 응답률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이 현재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고학력의 주부들 그리고 은퇴한 교육관련 종사자들이었기에 지역사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도슨트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극히 드물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방편으로 본인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자녀교육을 위해서 또는 남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도슨트 활동을 지원한다는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9년차의 박 도슨트에 의하면 “오랜 경력의 도슨트 활동은 자녀교육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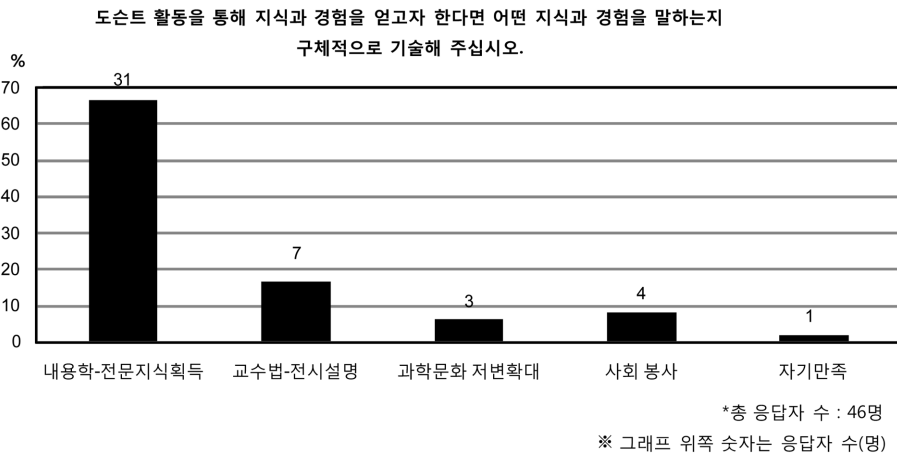


Fig. 3. Goals of docents during their docent activity.

있으며 특히 과학과목에 자녀들이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4년 경력의 이 도슨트는 “가족들의 도슨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여자로서 도슨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족의 도슨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역시 도슨트의 활동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과학관의 도슨트 전시해설을 들은 관람객의 경우 도슨트의 유무에 따라서 전시물에 대한 이해도는 많은 차이가 나기에 도슨트가 활동하고 있는 과학관의 경우는 필히 전시예약을 통해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듣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도슨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도슨트에 의한 적극적인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다.

도슨트 양성교육

도슨트가 경험한 양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는 기본적 소양교육, 건물교육, 그리고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전시해설법이나 참관교육은 제한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성교육 중 강의실 안에서 이뤄지는 이수시간은 61% 도슨트가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20-30시간은 14%의 도슨트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접 해보는 실습시간은 평균 9시간이 40%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4시간미만으로 실습하는 도슨트가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짧은 실습시간은 싱가포르 과학관의 도슨트 교육[경력 도슨트의 전시해설 참관

을 필수로 하여 실질적으로 약 6개월간의 해설을 하는 실습기간이 주어짐]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내의 참관 및 실습 시간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박영신과 이정화, 2011).

도슨트 양성교육과정 중 가장 유익했던 과정으로는 우선 과학관 관련 전시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었으며(28%), 선배 도슨트의 해설 참관(18%), 내용 전달 교수법(17%), 실질적인 실습(15%), 그리고 도슨트로서 지녀야 할 소양 및 태도(12%), 박물관에 관한 기본 이론(8%) 및 건물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슨트로서 자격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61%의 28명이 필기시험과 실습 시연이 동시에 이뤄지는 평가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Fig. 4), 평가자로서는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나 학예사가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54%). 한편, 이 도슨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도슨트 동호회에서 만나는 도슨트 선후배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각자의 경험담을 발표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슨트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도슨트가 전시해설하는 것을 참관하는 것은 본인들만의 전시해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극제가 된다고도 진술하였다. 하지만 토론 시간을 통한 도슨트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는 양성 교육시간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대상인 도슨트들의 활동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전시해설이기에 도슨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교육과정은 전시내용에 관련된 과학내용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전시해설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시해설법 또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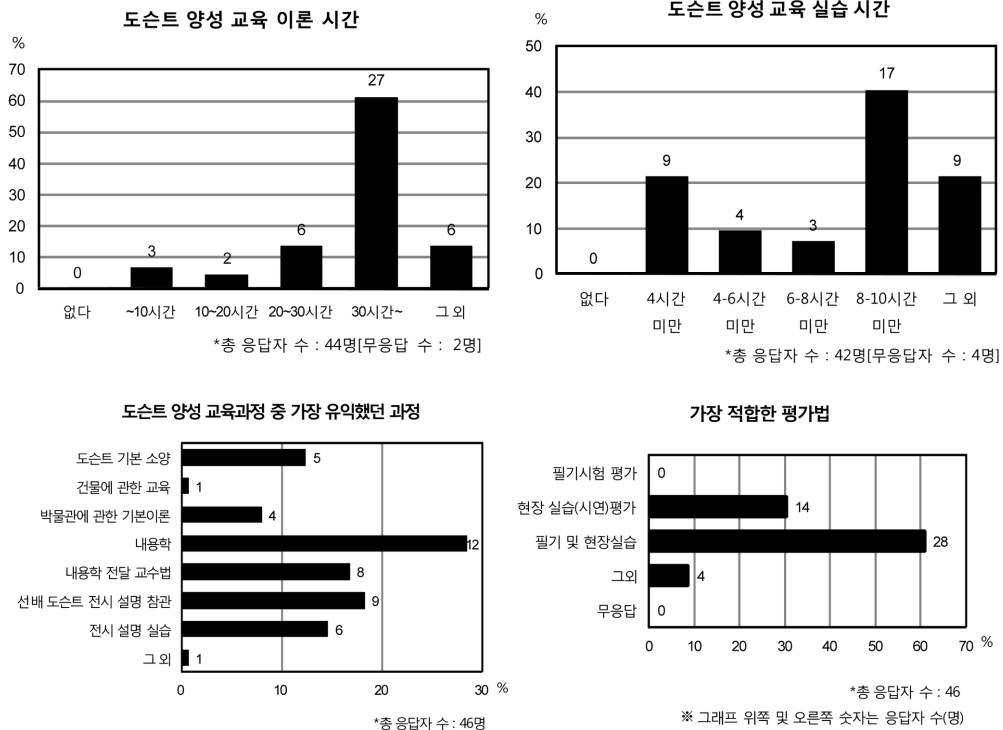


Fig. 4. Docent training program taken by participants in this study.

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설 참관 및 실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식을 형성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실습 시간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과학해설을 하는데 있어서 민감한 주제(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인체에 대한 전시해설, 가짜 화석에 대한 관람객의 질문, 오류가 있는 전시물에 대한 지적, 관람객이 학생인 경우 한 학생에게만 질문을 해서 다른 학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련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력이 많은 선배 도슨트와 신입 도슨트가 시간을 같이 하는 교육시간을 충분히 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경력 도슨트는 응답하였다.

Table 3과 같은 실제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슈는 경력 도슨트와의 시간배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도슨트 활동 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경력 도슨트와의 토론 시간이 있다면 간접적인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9년차 박 도슨트는 “과학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험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문제로, 신입 도슨트들의 시행착

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해설에 투입되기 전에 토론을 통해서 예민한 상황에 대처하는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소양교육”은 도슨트 양성 교육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학습으로 실제상황을 통한 경험에서 오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박영신, 2011b; Grenier, 2009).

국내의 한 도슨트 양성교육을 살펴보면(Table 4), 자연사 박물관을 담당할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이 전시 내용에 관련된 내용위주이기에 이를 이수한 도슨트는 단순하게 내용을 배우고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응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박 도슨트와 이 도슨트는 Table 4의 내용위주의 도슨트 양성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있는 도슨트가 전시물에 기획되고 의도된 전시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과 같은 경력 도슨트나 학예사의 실질적인 전시해설을 참관하고 전시해설법이 관람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익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 도슨트는 Table 4에서 나타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진정 열정으로 도슨트 활동을 할 수 있는

Table 3. Way that docents behave to solve the issues raised during tour guide

| 상황 | 도슨트 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 분석을 하고 관람객 분석을 한 후에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의논해보자.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내부의 관상용 벽걸이 어항이 깨졌어요. • 그 앞을 지나가던 아빠와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가 많이 놀랐지요. • 어린이의 옷은 젖었고 아빠는 화가 많이 났어요.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살 꼬마 어린이는 박물관에 들어서며 이것저것을 만졌습니다. • 주변에 계시던 자원봉사 선생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 전시장을 관람하던 엄마는 화를 못 참고 내려와 자원봉사 선생님께 항의 했습니다.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과 도슨트 해설을 들었던 엄마는 중간도 못가서 해설 듣기를 포기했습니다. • 도슨트의 해설 내용 중에 오류가 많았답니다. • 또한 도슨트는 중간 중간에 “이건 몰라도 되구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정해진 시각 11시) 해설을 위해 도슨트는 시작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 단체 인솔자는 시간이 없으며 10분 일찍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 중간쯤 해설 도중에 단체 관람객은 빠지고 개인·개별 관람객만 남았습니다. |

Table 4. The docent training program at ‘A’ natural science museum

| 구분 | 기간 | 회차 | 제목 | 비고 |
|--------------------|----------------|----|----------------------------------|--------------------------|
| 지원자 자연사 전문교육 (10회) | 2010.4~2011.1 | 1 |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및 박물관개요 | 2시간/회 (3회 이상 결석 시 탈락) |
| | | 2 | 생물분야 개요 | |
| | | 3 | 지구환경관 개요 및 전시물 | |
| | | 4 | 식물 의 분류 및 전시물 | |
| | | 5 | 고생물학 개요 및 전시물 | |
| | | 6 | 동물 의 분류 및 전시물 | |
| | | 7 | 표본 제작법 | |
| | | 8 | 곤충 의 분류 및 전시물 | |
| | | 9 | 천연기념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 |
| | | 10 | 전시설명 실습 | |
| 전시장 테스트 | 2010.4 | | 미통과시 재테스트(3회 한정) | |
| 수습기간 | 2010.5 | | 기존 도슨트 설명 참관 - 4회 | |
| 예비활동 | 2010.6 ~2011.1 | | 8개월 의 도슨트 예비활동 평가(활동비 지급) | |
| 수료식 | 2011.1 | | 도슨트 증 발급 | |

지에 대해서 서류심사에서 판명이 나야 하고 도슨트 소양 관련 태도에 대해서는 면접 심사를 통해서 구분되며 비로소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슨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양성교육과정 이수 후에 치러지는 테스트에 미통과 시 주어지는 재평가는 탈락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 도슨트의 질을 가늠 짓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학구열과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적절한 운영방법”이라고 박 도슨트는 지적하였다.

Table 4의 교육과정을 보면 수습기간이라 하여 기존 도슨트의 해설을 참관하는 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수습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평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예비활동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도슨트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좀 더 체계적인 즉, 의도와 평가가 잘 연계되어 있는 양성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도슨트의 활동

도슨트 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과학관 협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도슨트는 정기적으로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다. 한 국내 과학 도슨트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예비활동으로(Table 4) 8개월간 활동(평가기간)을 하고 이 후에 도슨트 수료증을 받게 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예비활동 실습기간은 도슨트 양성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다르게 적용되며, 국내외 역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도슨트 수료증이 발급되면 도슨트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과학관이나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과학관(과학관 협회에서 제공된 양성교육을 이수한 도슨트의 경우)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국내의 과학관 도슨트의 활동은 Fig.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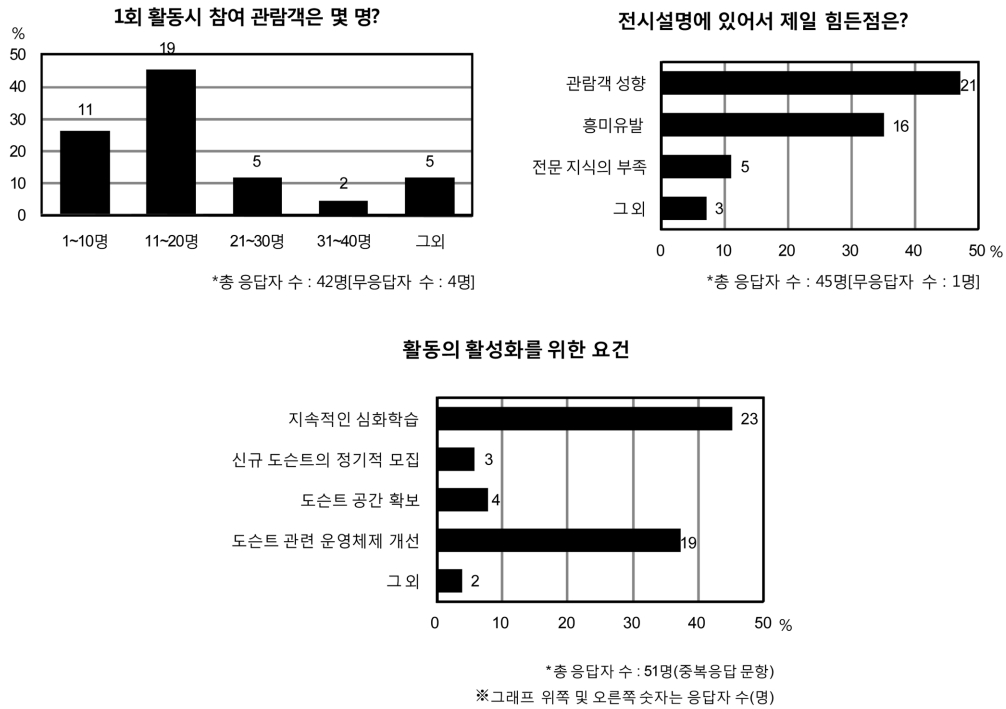


Fig. 5. Docents' working conditions.

도슨트가 활동하는 시간 및 회수는 월 4번이 가장 빈번하였으나 많게는 월 8회, 작게는 1회 하는 도슨트도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의 성격이기에 개인적인 사정과 과학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1회 활동 시에 도슨트가 해설을 하게 되는 관람객의 규모는 11-20명이 가장 많았으나(45%), 과학관의 사정에 따라 단체관람이나 개인적인 관람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Fig. 5). 하지만 선호되는 관람객의 규모는 20명 이내로 파악된다.

도슨트의 주 활동인 전시해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람객의 성향을 파악하여 해설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47%). 관람객 규모에서부터 다양한 수준의 관람객이 섞여 있다는 것은 특히 초보의 도슨트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Fig. 5). 구체적으로 장애요인을 보면, 첫 번째로 초등학생이 전시해설과 예상치 않은 질문을 하는 경우, 관람객의 구성원이 너무 많거나 다양한 경우, 너무 어린 관람객의 경우, 산만한 분위기에서 해설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두 번째로는 35%에 해당하는 16명의 도슨트는 관람객의 흥미를 지속시키면서 해설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관람객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스스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오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11%).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슨트는 흥미유발과 관람객의 질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화학습(45%)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도슨트 관련 운영체제가 개선(37%)되기를 그 다음번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도슨트 공간 확보(8%)가 과학관마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신규 도슨트의 지속적인 정기모집(6%)이 도슨트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Fig. 5).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효율적인 전시해설이 쉽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본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관람객 수준에 맞추는 해설을 하고자 노후우를 공부하는 도슨트가 있는가 하면(23%), 전문서적이거나 다른 과학관의 탐방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자 노력하고 있으며(19%), 관람객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질문이나 설명을 좀 더 강화하거나(16%), 흥미유발을 위해서 실생활과 연계시키려는 노력(13%), 유머러스하게 또는 흥미를 돋우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들의

효율적인 전시해설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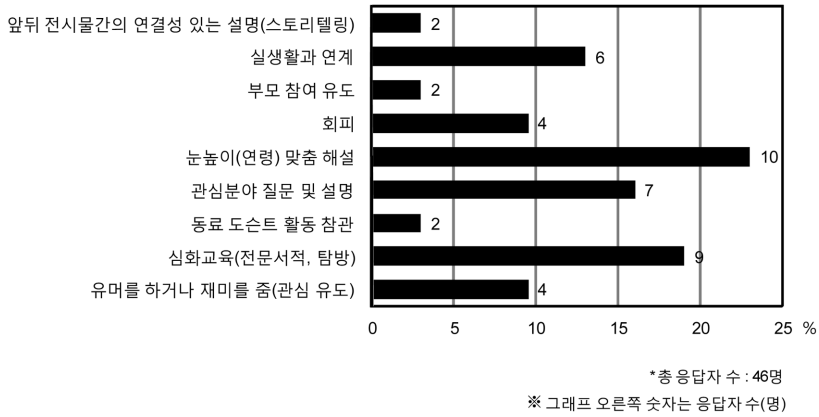


Fig. 6. The effective interpretation-strategies pursued by docents.

활동을 참관하여 비교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에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전시해설법을 추구하고 있었다(Fig. 6).

한편, 도슨트 활동에 대해서 도슨트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활에 활력이 되는 원동력이 생겼고(28%), 지식의 확장이 생겼으며(26%), 타인 앞에서의 자신감이 생기거나 인간관계의 확장 또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도슨트가 각각 7명의 응답으로 15%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Fig. 7).

이에 반해, 도슨트 활동에 불만족한 부분은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서 주어지는 물질적 지원의 부족(31%), 사회의 도슨트에 대한 낮은 인식(20%), 도슨트 간의 갈등(18%), 활동시간의 조절의 어려움(14%), 기관의 관리자와의 갈등(6%)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8).

특히 기관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도슨트가 속한 기관의 직원들과의 우호도가 좋지 않음이 전체 46명 중 21명 48%로 나타난 것은 도슨트의 낮은 사회적 지위의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도슨트에 의하면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다 보면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관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정도는 46명중 18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39%). 한편, 도슨트와 과학관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는 가장 빈번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잡혀져 있는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46%) 기관내의 직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기회가 날 때마다,

도슨트 활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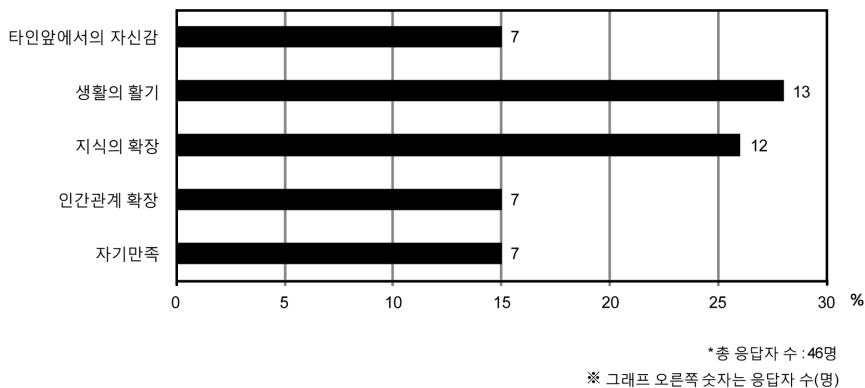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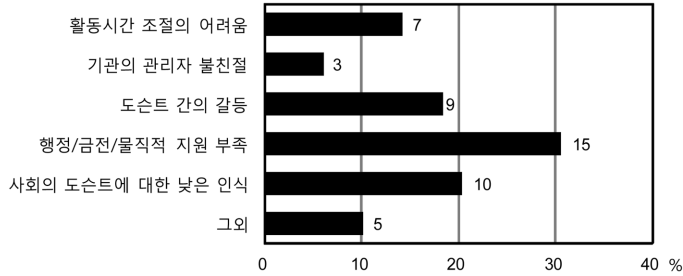


Fig. 7. The benefits of becoming a docents.

도슨트 활동에 있어서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주된 이유는?



* 총 응답자 수 : 49명(중복응답 문항)
 ※ 그래프 오른쪽 숫자는 응답자 수(명)

Fig. 8. The barriers in enhancing docents' activities.

전자메일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보충교육 때 운영관리자 및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슨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자율적인 도슨트 운영자와의 의사소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도슨트 운영자와의 주기적인 만남이 도슨트 교육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박 도슨트의 응답을 미뤄 볼 때 의사소통을 통해서 도슨트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학예사나 연구사와 같은 도슨트의 운영자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도슨트 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41명 중에 37%인 15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6명인 63%는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처음부터 보수를 바라고 지원한 봉사적이 아니기에 보수에 있어서는 민감한 편은 아니었으나 2시간 넘는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도슨트의 경우는 교통비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도슨트와 이 도슨트는 “적절한 교통비와 식비만 주어지면 활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도슨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충 교육 및 다른 과학관의 탐방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보충 연수는 도슨트들에게 본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양성 후의 활동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도슨트 보충 연수 교육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는 양성교육 이후 제공되는 보충 연수교육의 개발 및 운영은 양성 하는 것만큼 도슨트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46명의 도슨트 중 80%인 37명이 보충 연수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충 연수교육의 형태는 전시내용의 심화를 위한 강의식(26%), 토론 수업(26%), 실습 참여(19%), 그리고 사례 연구 및 선배 도슨트의 참관 순으로 적합한 교육방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충교육 강사로 선호되는 사람은 학예사나 연구사가 가장 많았으며(40%), 대학교수나 분야별 전문가가 두 번째로(38%),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선배 도슨트가 세 번째로 선호되는 강사임이 나타났다(17%)(Fig. 9).

특히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연속적인 보충이 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선호되는 것은 전시물에 관련된 내용학 전문지식(48%), 최신 내용 및 이슈(23%), 전시해설 관련 교수법(18%), 참관교육(5%)과 소양교육(5%), 그리고 자료 및 정보제공(2%)으로 나타났다(Fig. 10).

내용 및 전문지식의 습득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이유는 도슨트 지원자가 대부분 과학에 대한 비전공자이면서, 도슨트 활동의 특징상 지정된 한 곳이 아닌 2-3개의 다른 과학관에서 활동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박 도슨트의 경우는 자연사 박물관, 생태체험관, 생물자원관, 역사박물관 등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도슨트의 경우도 자연사 박물관, 생태체험관 및 방과 후 체험교사와 같이 최소한 3군데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도 생물부분과 지구과학분야로 구성되어 있기에 폭 넓은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박 도슨트의 인터뷰에 의하면 각각 다른 과학관에서 요구되는 해설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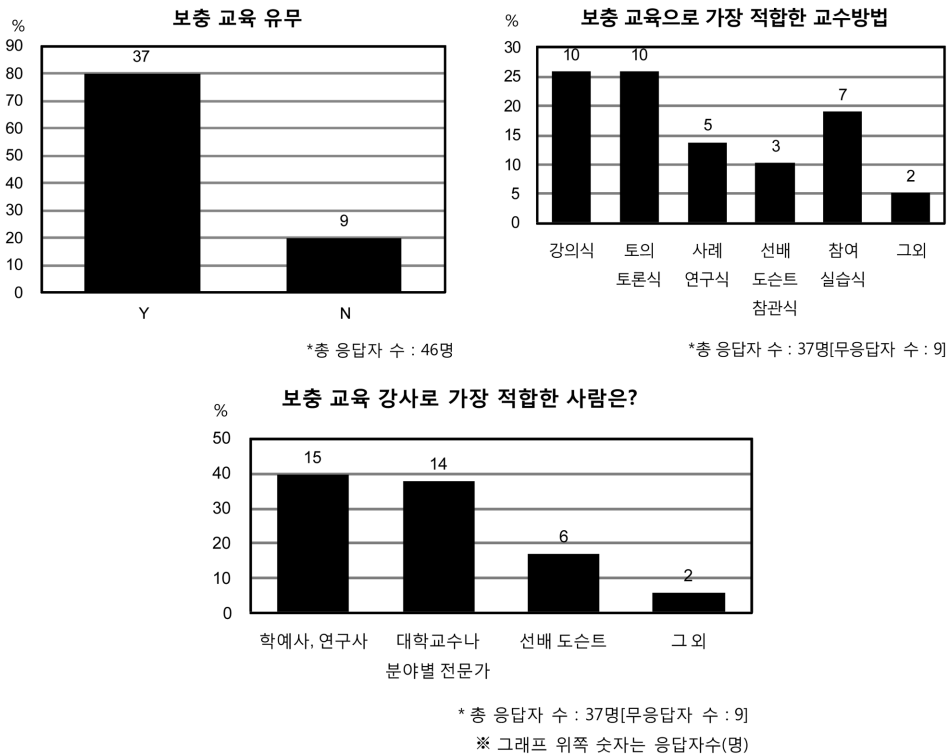


Fig. 9. The docents professional program as additional.



Fig. 10. The most preferred education for docent professional program.

책 몇 권 독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요. 생물자원관에서 해설을 2년하고 나니깐 자연사박물관에서 하는 생물영역 해설하고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은 '곤충의 구조나 특징, 지렁이가 환경동물이다'라는 등의 설명을 하면 되지만 자원관의 경우는 '곤충의 집게발을 보고 펜치를 개발하였으며 지렁이를 가지고 립스틱을 만들었다'라는 식의 해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관은 과학의 원리에 치중하고, 자원관의 경우는 원리를 이용한 응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박 도슨트 인터뷰)

이처럼 과학관의 해설은 그 과학관의 목적에 맞게 해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해설을 하는 도슨트는 과학관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전시해설을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의 습득을 우선적으로 필수항목으로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지식에 대해서, 국외의 과학관은 해당 기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도슨트를 직접 양성하고 관리하며 기관 소속의 연구사나 학예사가 함께 연구

를 함으로서 심도있는 꾸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등 연구중심의 해설이 가능(박영신과 이정화, 2011)하게 한다. 하지만 국내 과학관 협회를 통한 도슨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도슨트 경우, 각자 본인들이 활동할 과학관을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찾아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양성 후의 관리차원에서 이뤄지는 보충 연수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부진공자의 도슨트는 꾸준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가장 중요한 본인들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지식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양성된 도슨트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데 장애요소임은 확실하다.

결론 및 제언

국내의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람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켜줘야 하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전시해설을 통해 관람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도슨트의 양성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슨트 46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슨트 자원봉사직에 대한 이해, 이들이 이수한 도슨트 양성교육 특징, 그리고 현재 도슨트의 활동여건 및 도슨트 전문화를 위해 희망하는 보충 연수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과학관 관계자들의 도슨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일반인들의 도슨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도슨트는 일반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슨트는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전시물의 해설을 돕는 조력자로 과학관의 방문으로 인해 '남을 가르치다'라는 일에 매료되거나 경험이 있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들은 도슨트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어떤 다른 직종을 위한 경력이 아닌 그 활동의 자체에 의미를 두는, 즉 활동을 통한 지식획득 및 전시해설방법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도슨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경력에 차별화를 두어 다른 성격의 도슨트의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경력 도슨트에 의한 추천제에 의해서 새로운 도슨트를 모집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선정된 도슨트는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게 됨으로 과학관에 쉽게 적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박영신, 2012). 한편, 선정 분야에 있어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도슨트는 일반 서비스차원의 봉사직하고는 차별화되어 모집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도슨트 모집에서도 지원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투어가이드 해설에 적합한 사람, 해설보다는 연구사나 학예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사람, 투어보다는 전문적인 지식분야에서 시범위주로 해설에 적합한 사람 등으로 차별화하여 모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급의 도슨트 선별과 이들의 분야에 따른 활동은,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도슨트가 단순 서비스차원의 봉사자가 아닌 교육직의 전문화된 교육자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고 도슨트 활동에 있어서는 활성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곽민경, 2007).

두 번째 참관과 실습이 주가 되는 도슨트 양성교육 및 보충 연수교육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이뤄져도 도슨트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양하게 구성된 관람객의 수준을 속히 파악하지 못하여 전시해설을 못하는 경우나, 너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같은 전시물에 대해서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물에 대한 오류 지적이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강의실에서 듣는 이론의 수업이 아닌 현장 경험에서 오는 실질적 대처방안을 알고 있는 경력 도슨트로부터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도슨트 양성 및 보충 연수교육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도슨트는 다양한 구성원의 관람객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관람객의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전시된 전시물에 대해서 능숙하게 해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을 내 손님처럼 대우하며, 과학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람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강한 인상을 주는 해설을 해야 하는 것은 강의실 안에서 강사로부터 또는 전시물 앞에서 학예사나 연구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형식학습(formal learning)은 충분히 도슨트를 역량 있는 도슨트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전문화된 도슨트로 양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슨트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물이 갖추어진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을 통한 비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ave and Wenger, 1991; Grenier, 2009). 비형식 학습방법으로 경력 도슨트가 함께하는 토론 시간을 양성교육과정이나 보충 연수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선배 도슨트로부터 해설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대처법에 대해서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선배 도슨트의 멘토링은 현장에서 습득된 지식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신입 도슨트에게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하면서 교육적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로, 도슨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슨트를 담당하는 관리자와 도슨트간의 신뢰가 바탕을 이루는 평가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슨트를 모집하고 양성한 후에 지속적인 보충 연수교육을 제공하고 기관내의 교육부서와의 공동 작업으로 도슨트의 운영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도슨트에 의하면 많은 수의 도슨트를 모집하고 양성하여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가 20-30%만 남게 되는 이유로 사후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법률적 근거는 아니더라도 도슨트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수와 복지시설 및 물리적 여건, 그리고 한 교육자로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였던 도슨트가 각 기관 내에서의 직원들과의 우호도가 좋지 않은 것은 도슨트의 교육적 위치에 대한 직원들의 낮은 인식에 기인할 수도 있기에 과학관내의 여러 회의나 행사 등에 도슨트의 대표자를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사나 학예사가 도슨트에 대한 인식 즉, 도슨트의 교육적 위치를 높게 인식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슨트와 정규직의 연구사 및 학예사 사이에 인력의 조화가 잘 이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도슨트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슨트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에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 제도,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학예사, 담당자 및 경력 도슨트로 이루어진 그룹에 의해서 도슨트의 자격을 평가받는 제도 등을 설립하여 도슨트 전문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제도의 마련이 있을 것

이다(김종대, 2009; 노용 외, 2007; 윤병화, 2012; Griffin, 2004).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언급한 도슨트 모집제도, 교육제도, 운영제도는 도슨트가 과학관의 교육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하는 기반 마련임과 동시에 도슨트의 위상을 정립시켜 주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의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의 도슨트 제도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과학대중화를 위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의 과학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슨트를 체계적으로 모집하고, 양성하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연구의 결과가 학술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되길 바라는 바이다.

사 사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1-0014352).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과 이 논문을 탄생하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국내의 과학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과학 도슨트 및 과학해설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박민경, 2007, 도슨트(docent) 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성화 방안연구: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 p.
- 김영수, 2009, 국립민속박물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개발을 위한 운영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3 p.
- 김종대, 2009, 박물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서울, 190 p.
- 김효선, 김경훈, 2011, 국내 과학관 도슨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9, 1-11.
- 노용, 이주연, 류지영, 이선아, 2007, 박물관 교육의 기본. 미진사, 서울, 312 p.
- 민수영, 2007, 성인학습자로서 박물관 도슨트의 경험 의미. 평생교육연구원, 13, 146-168.
- 박영신, 2011a, 과학관에서의 도슨트의 이론 및 실천 조사. 한국지구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p. 58.
- 박영신, 2011b,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과학 대중화를 위한 도슨트 전문성 육성방안. 2011년도 세계 과학관 심포지

- 업, p. 20.
- 박영신, 2012, 관람객의 교육만족도를 위한 과학관의 경력 도슨트의 전시해설 기법 전략 파악. 한국과학교육학회 2012년도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초록집, p. 23.
- 박영신, 이정화, 2010, 국내외 과학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실태: 도슨트 양성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 2010년도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초록집, p. 173.
- 박영신, 이정화, 2011, 과학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 모색. 한국지구과학회지, 32, 881-901.
- 박영신, 이정화, 정세환, 오성훈, 김희경, 2011, 과학관에서 도슨트의 이론 및 실천 조사. 한국지구과학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초록집, p. 58.
- 박응희, 이병준, 박지연, 최유주, 2009, 박물관교육방법으로서의 '해설'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 교육사상연구, 23, 97-111.
-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homepage: http://namu.sdm.go.kr/sub06/?Order=06_02_1 (검색일: 2012. 4. 4.)
- 윤병화, 2012, 학예사를 위한 박물관학. 예문사, 파주, 206 p.
- 윤은희, 2005, 도슨트가 전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 p.
- 이철희, 2009, 박물관 도슨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총주교 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3-136.
-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homepage: http://nhm.ewha.ac.kr/edu/edu_09.jsp (검색일: 2012. 4. 4.)
- 한문정, 양찬호, 노태희, 2010, 과학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요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 1060-1074.
- Cox-Petersen, A.M., Marsh, D.D., Kisiel, J. and Melbar, L.M., 2003, Investigation of guided school tours, student learning, and science reform recommendations at a museum of natural histor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 200-218.
- Fienberg, J. and Lienhardt, G., 2000, Looking through the glass: Reflections of identity in conversations at a history museum. *Museum Learning Collaborative Technical Report # MLC-06*, <http://mlc.lrdc.pitt.edu/mlc> (검색일: 2012. 3. 13.)
- Gateway Science Museum homepage: <http://www.csuchico.edu/gateway/participate/volunteering.shtml> (검색일: 2012. 4. 4.)
- Grenier, R.S., 2005, How museum docents develop expertis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eorgia, 207 p.
- Grenier, R.S., 2009, The role of learning in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in museum docents. *Adult Education Quarterly*, 59, 142-157.
- Griffin, J., 2004, Research on students and museums: Looking more closely at the students in school groups. *Science Education*, 88, 59-70.
- Hooper-Greenhill, E., 2007, *Museums and Education: purposes, pedagogy, performance*. Routledge Press, London and New York, 231 p.
- Lave, J. and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USA, 138 p.
- McWane Science Center Docent Volunteer homepage: http://www.mcwane.org/contribute_volunteer/volunteer/docent (검색일: 2012. 4. 4.)
- National Docent Council, 2001, *The docent handbook*, National Docent Symposium Council, USA, 103 p.
- Tsybulskaya, D. and Camhi, J., 2009, Accessing and incorporating visitors' entrance narratives in guided museum tours. *Curator*, 51, 81-100.

2012년 1월 30일 접수

2012년 3월 14일 수정원고 접수

2012년 4월 19일 채택